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참된 행복을 위한 가치

젊어서 행복하고 늙어서 불행하다면 젊었을 때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늙어서 괴로우면 젊어서 행복했던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요.

젊음은 늙음으로 변해서 허망하고 미모는 영원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고 돈은 두고 가야 돼서 가치가 없고 명예는 껍데기뿐이라서 부질없어요. 지나가고 말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결국 실망과 고통뿐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진실한 우애와 애정을 나누는 것, 타인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기서 깊고 참된 의미와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두면 늙어서도 죽을 때도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⑯ 쿤룬산 야생설국

작지만 풍요롭고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

미안해, 춥고 매서운 눈바람을 맞으며 애써서 꽃으로 피어난 너를 차로 마시게 되어 미안해. 고마워, 혹한의 눈바람 견뎠기에 뜨거운 물에서도 강인하고 향기로운 너의 깊음을 차를 마시는 내내 바라보고 느끼게 해주어 고마워.

1g에 99송이, 100g에 9900송이나 되는 이 작은 꽃들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쿤룬산맥의 해발 3000m-3800m 설산에서 피는 국화차입니다. 일년 내내 만년설이 덮인 설선(雪線) 위에서 피는 꽃이라서 그냥 국화차라고 부르기에는 서운하고 눈 설(雪)자를 붙여서 꼭 '설국(雪菊)'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쿤룬산 야생설국' 입니다. 작고 여린 꽃들은 추운 설산에서 어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설국은 작지만 풍요롭고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황금색 꽃잎에 갈색의 꽃술로 피어나는데, 꽃잎이 벌어지면 꽃향기도 흩어지기에 최상급의 설국은 어린 꽃봉오리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설국 '설태(雪胎)'라고 부릅니다.

쿤룬산(崑崙山)은 동아시아 신화 속에서 불사의 여신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산입니다. 서왕모는 피부는 눈처럼 희고 하얀 백발을 발밑까지 드리웠는데 몸매는 나긋하기가 소녀 같아서 소녀인지 할머니인지 누구도 나이를 알 수 없는, 바람과 이슬만 먹고 사는 백설여신입니다. 서왕모가 사는 쿤룬산의 꽃, 설국을 마시며 선계(仙界)를 그리워합니다.

한때는 히말라야 산을 그리워했습니다. 누가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네, 그런 행위를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 덮인 설산 위로 쏟아지는 푸른 별빛을 한없이 보고 싶다… 푸른 양귀비꽃을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순전히 김재진 님의 '푸른 양귀비'라는 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너는 대답했지/ 그건 소리가 아니었지만/ 너는 말하고 나는 듣고 있었어/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니?/ 창백한 얼굴 들어 너는 나를 올려보며/ 푸르고 조그만 입김 불어 대답해 왔지/ 얼른 피고 얼른 지는 게 내 운명이야/ 다음날은 바람이 드셌고/ 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너 따라가는 마음 불러 나는 바람에게 물었지/ 꽃들은 어디 갔니? 푸른 양귀비는?/ 너무 투명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 몇 장의 꽃잎으로 하늘 받든 너는 내게/ 얼른 피고 얼른 지며/ 세상 넘는 법을 가르쳐 줬지/ 낙타는 혹을 지고 사막을 넘고/ 강물은 낮게 흘러 산을 넘는데/ 혹한의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은/ 얼른 피고 얼른 지며 스스로를 넘는다" (김재진, '푸른 양귀비')

쿤룬산 야생설국을 마시며 비로소 히말라야에 가서 푸른 양귀비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설산에 피는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장의 꽃잎으로 하늘을 받들고 애써서 스스로를 넘고 세상을 건너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빛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깊어진다고, 혹한을 견뎠기에 더 깊고 너그러워진다고 설국은 위로를 건넵니다.



쿤룬산 야생설국

들판에서 자라는 국화는 예뻐서 찻잔에 띄워놓고 바라보는 차이지 맛이 좋아 마시는 차는 아닙니다. 베이징대학교 유학시절에 중국 친구들은 국화차에 설탕을 타서 먹곤 했습니다. 가을에 차오스(중국수퍼마켓)에 가면 국화차가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는데 유리병에 넣어두고 한 철 바라볼 뿐 차로 마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쿤룬산 야생설국은 설산의 정기를 품은 귀한 차입니다. 험준한 설산에서 짧은 시간에 피었다 지기 때문에 한 송이 한 송이 채집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가 않지요.

쿤룬산 야생설국은 차의 빛깔만 보고도 탄성이 나옵니다. 차를 우린 수색이 붉디 붉어서 혈국(血菊)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빨강색이 아니라 빨강분자와 빨강분자 사이에 황금분자가 촘촘히 박혀 있는 그런 황금빨강색입니다. 향기는 또 어떻구요, 향긋한 한약 약재 향기가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달달한 꿀향과 꽃향이 올라오고 우유향과 버터향이 살짝 스칩니다. 농밀하고 달콤하고 쫀쫀하고 시원하고 95도~100도의 뜨거운 물로 우리면 찻잔 속에서 꽃봉오리가 벌어져 꽃심을 드러내는데, 그 추운 눈바람을 맞고 얼마나 강인해졌는지 내포성도 좋아서 찻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여도 고유의 향기와 맛을 변치 않습니다.

해발 3000m 설선 위에서 피는 고산 야생설국이 최상급차, 설선 아래의 고산지대에서 피는 설국이 그 다음 등급입니다. 고산 야생설국의 종자를 받아서 평지에서 키우는 차도 설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또 천막 등의 보호 장비를 설치하여 성장을 돕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설선 위 고산지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쿤룬산 최상급 야생설국도 첫 꽃봉오리 맺힐 때 만든 차는 1g에 99송이, 두 번째 꽃봉오리 맺힐 때 만든 차는 1g에 90송이더군요. 쿤룬산 최상급 야생설국 첫 꽃봉오리 차는 너무 소량이라서 내년 차를 올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맛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고산지대 야생일수록 꽃인지 열매인지 한약 알갱이인지 얼핏 분간이 가지 않게 크기도 작고 색도 붉다 못해 검습니다. 평지로 내려갈수록 재배차일수록 꽃송이가 더 크고 빨갛고 예뻐 보입니다. 설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재배설국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배설국차는 한약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설산에서 추위를 이기고 핀 야생설국만이 꽃향기가 농밀하여 한약향기가 나도록 응집되고, 황금빨강의 윤기 넘치는 수색을 펼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다면 설국을 권합니다. 숙면을 돕고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눈도 맑아집니다. 잡티가 없어져서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차 입문자가 마시기에도 맛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삶의 한 언덕을 건너가고 있는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잇다it茶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